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 구분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반도정세의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여 적들의 도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군사훈련들을 조직진행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비행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이 10월 6일과 8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사훈련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10월 6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서부지구 공군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이 진행되였다.

합동타격훈련은 적군사기지를 모의한 섬목표에

대한 공군비행대들의 중거리공중대지상유도폭탄 및 순항미사일타격과 각종 근접습격 및 폭격비행임무를 수행한데 이어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순차별 화력타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훈련을 통하여 전선포병들과 전투비행사들의 작전동원준비상태와 전투실력이 불의적으로 엄격히 검열 되였으며 결과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준비태세의 정확성과 고도의 실전능력이 뚜렷이 실증되였다.

10월 8일 조선동해에 재진입한 미해군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군해군의 해상연합기동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정세배경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출격시킨 조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공격종합훈련이 진행되였다.

훈련에서는 공군사단, 련대별 전투비행사들의 지상목표타격과 공중전수행능력을 판정하고 작전대상물에 따르는 공습규모와 절차와 방법, 전법을 재확충하며 비행지휘를 숙련하고 부대별 협동작전 수행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신형공중무기 체계들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이어 이날 밤 적작전비행장타격을 모의한 전선 동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대집중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되였으며 제시된 전투정황에서의 신속대응 능력과 군사적위력, 무기체계들의 전투적성능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미더운 포병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전투력강화의 나날들에

부단히 련마해온 우수한 실전능력과 우리 군대특유의 기질적인 용감성과 애국심을 남김없이 발휘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면서 불의적인 실전상황에도 능동적으로 정확히 대처할수 있게 사상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장병들이 투철한 주적관, 주체적인 전쟁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의 최전방과 우리의 자주권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철통같이 지켜나갈것을 호소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을 사랑의 한뼘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대규모항공공격종합훈련에 참가하여 혁혁한 군공을 세운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10월 9일 대규모항공공격종합훈련에 참가하여 혁명적당군의 필승의 기개를 만천하에 떨치고 당중앙의 권위를 사수한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작전적구상에 따라 전격적으로 전개된 전군사에 전례없는 대규모의 항공공격종합훈련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불굴의 전투정신을 발휘하며 인민공군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당의 훈련명령을

빛나게 관철한 영웅한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밖의 부르심을 받고 꿈만같이 당중앙트락에 들어선 끝없는 행복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오시자 전체 전투비행사들은 천재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명군술, 강철의 담력과 배짱으로 강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국위를 세계만방에 힘있게 떨쳐가시는 백전백승의 천출명장을 우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 하시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 결사의 각오를 안고 당중앙의 명령일하에 일제히 총출격하여 무적의 용맹을 떨친 전투비행사들의 혁혁한 군공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영광을 진감한 용맹한 비행대들의 멸적의 폭음은 조국수호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당과 혁명을 철벽으로 보위해가는 조선인민군 공군의 전투력의 일대 파시로 조국청사에 기록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투비행사들이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승리와 영광의 년륜을 새기며 충성의 항로를 변함없이 날아온 우리 공군특유의 훌륭한 전투정신, 투쟁기질을 더 높이 발휘하여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가기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